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재귀 표현 대조 연구

응웬옥빈 항 · 박덕유*

|| 차례 ||

- I. 서론
- II. 한국어와 베트남어 재귀 표현
- III.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재귀 표현 대조
- IV. 결론

【 】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는 재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귀 표현은 간단한 문법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문법적 기능을 살펴보면 아주 복잡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재귀대명사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와 베트남어 재귀 표현을 대조함으로써 양국 언어 재귀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교수·학습 전략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와 베트남어 재귀 표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양국 언어 재귀 표현을 형태 및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으로 대조 분석을 했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와 베트남어 간에 재귀 표현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결론에서는 대조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재귀 표현의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재귀 표현, 한국어 재귀대명사,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어와 베트남어 재귀 표현 대조

* 제1저자(인하대 국어교육과 박사수료), 교신저자(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

I. 서론

한국어의 대명사 중 재귀대명사가 있다. 재귀(reflection)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옴’을 뜻하며, 재귀대명사(reflexive pronoun)는 선행(先行) 체언을 도로 나타내는 삼인칭 대명사이다.¹⁾ 한국어의 대표적인 재귀대명사로 ‘저, 자기, 자신, 당신, 저희’ 등이 있고, 베트남어의 대표적인 재귀 표현으로 ‘bản thân’(반턴), ‘mình’(밍), ‘bản thân mình’(반턴밍), ‘tự’(쯔) 등이 있다. 재귀대명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²⁾ 특히 한국과 베트남 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발전하면서 한국어를 구사하려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어와 베트남어 재귀 표현 대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어 학습 교재에서 한국어 재귀 표현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어휘나 문법 표현을 다루는 부분에도 재귀 표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재귀대명사 ‘저’, ‘자기’, ‘자신’, ‘당신’ 등을 학습할 때 이들의 용법을 자세히 배우지 못하는 것이 한국어 재귀대명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특히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베트남어의 차이로 인해 양국 언어 간에 다른 점이 많다는 점에서 양국 언어의 재귀 표현의 쓰임에도 역시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재귀대명사를 학습하는 데

1) 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

2) 강병모(1999)에서는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000만 어절의 코퍼스에 기반하여 한국어 재귀대명사 발생 빈도를 조사한 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자기’의 사용 빈도는 10,005개이며, ‘자신’의 사용 빈도는 10,601개이고 ‘자기자신’의 사용빈도는 508개라고 제시하였다.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와 베트남어 재귀 표현을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후 교수·학습 전략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한국어와 베트남어 재귀 표현

1. 한국어의 재귀 표현

한국어에서 재귀 표현의 개념과 범위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현배(1959:233)은 재귀대명사를 이미 한 번 드러난 사람 그이를 돌이켜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고, 성광수(1981:31)에 따르면 재귀대명사란 동사로 나타나는 주체어의 동작 또는 행위가 어떤 다른 목적어에 미치지 않고 주체어에 재귀하는 대명사라고 했다. 이익섭(2005:108)은 재귀대명사는 앞에 나온 말, 즉 선행사를 다시 받되 일반 대명사와 구별되는 특유의 형태를 띤 대명사를 가리키는데 3인칭에서만 나타난다고 했다.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2002:93)에서는 앞에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재귀칭의 인칭대명사로 국어에서 재귀대명사는 3인칭 주어로 쓰인 명사나 명사구를 다시 가리키는 데 쓰인다고 했다. 구분관 외(2015:171)에서는 대명사의 특수한 예로 재귀대명사로 불리는 재귀칭이 있는데, 이는 다른 대명사들이 앞 문장이나 문맥에 나오는 체언을 대신하는 것과 달리 대체로 한 문장 안의 체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이상의 한국어 재귀 표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재귀 표현은 재귀대명사 또는 재귀칭의 용어로 사용되며 하나의 문장 안에서 선행사인 체언과 조응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즉, 재귀대명사란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의 하위분류로 3인칭 대명사이며 앞에서 나온 체언(명사나 명사구)를 다시 가리키는 재귀칭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명사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어 재귀대명사는 ‘자기’가 유일한 형태로 인식되어 왔다. 이익섭(1978)은 한국어 재귀대명사에는 ‘자기’밖에 없으며 ‘저’, ‘당신’은 ‘자기’의 준비관계에 따라 달리 쓰이는 형태라고 하였다. 이후 김일웅(1982)에 따르면 ‘자기’, ‘자신’, ‘자기자신’, ‘자체’가 모두 재귀대명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서정수(1996)에서는 재귀 표현은 일반 형태로 ‘자기, 자신, 자기자신’이 있고 경어법에 따라 ‘저, 당신’이 있으며, 이외에 ‘스스로와 자체’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2002:92-93)에서는 1인칭의 ‘저, 저희’와 대응되는 3인칭의 ‘저, 저희’가 있고, 2인칭의 ‘당신’과 대응되는 3인칭의 ‘당신’이 있으며 이외에 ‘자기’가 있다고 했다. 구분관 외(2015:172)에서는 높임의 등분을 달리하여 ‘해라체’를 쓸 대상을 받는 ‘저, 저희(복수)’, ‘해체’를 쓸 대상을 받는 ‘자기’, ‘하십시오’를 쓸 대상을 받는 ‘당신’을 들었다. 이외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2005)에서는 재귀대명사를 ‘자기’, ‘저’, ‘당신’, ‘본인’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재귀대명사로 ‘자기, 자신, 자기자신, 저, 저희, 당신, 본인, 스스로, 자체’ 등을 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귀대명사의 범위의 조건으로 한 문장 내에서 선행사가 3인칭 유정명사이어야 하며 선행사를 다시 다른 말로 나타내는 3인칭의 단일어로 한정시켜서 고찰하고자 한다.

1) 자기

‘자기’는 한국어에서 흔히 사용하는 재귀 표현이다. ‘자기’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다. ‘자기’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 다양한 위치에서 나올 수 있으며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 (1) a. 영수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b. 호영은 **자기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만났다.
 c. 란 씨는 **자기한테** 어울리는 치마를 찾고 있다.
 d. 마이는 **자기 다리를** 주물렀다.

(1)에서 재귀대명사 ‘자기’는 격조사 ‘가, 를,한테’와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자기’는 주격(1a), 목적격(1b), 부사격(1c) 조사와 결합하고, (1d)에서처럼 생략된 관형격 조사의 기능으로 ‘자기’는 다리를 수식하면서 ‘다리’의 성질을 한정해 주고 있다. 문장 내에서 명사구를 형성하고, 주어인 ‘마이’가 명사구를 지시하여 서술어 의미의 영향을 받아 ‘자기’가 ‘마이’를 재귀한다. 즉 문장 내에서 ‘다리’는 ‘마이의 다리’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문장 내에서 재귀대명사 ‘자기’가 쓰일 경우 소유격의 역할을 하여 주로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해도 된다.

‘자기’는 ‘자신’에 비해 제약이 많다. 그것은 선행사의 조건, 즉 인칭, 주어의 여부, 그리고 문장내의 위치와 거리와 같은 제약들이다. 먼저, ‘자기’의 선행사 조건을 살펴보겠다. 기본적으로 재귀대명사 ‘자기’의 선행사는 3인칭이다.

- (2) a. * 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
 (자기 → 자신)
 b. * 너는 **자기가** 숙제를 다 했니? (자기 → 네)
 c. 호영은 **자기를** 떠난 남자를 만났다.

위의 (2c)에서는 ‘자기’의 선행사가 3인칭이므로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그러나 (2a, 2b)는 ‘자기’의 선행사가 1·2인칭을 선행사로 취하기 때문에 비문이다. 그러나 ‘자기’가 1인칭과 2인칭에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자기’가 문장 내에서 명사구를 형성하면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는 아래의 (3a) 예문과 같다.

- (3) a. 내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보이니?
 b. 너는 지금 도대체 자기 정신이냐? (임흥빈:1987)

임흥빈(1987)은 예문(3b)처럼 ‘지금의 너’는 ‘평소의 너’와 분리되어 3인칭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는 타자의 시점을 도입하여 의미론적으로 3인칭화를 겪는 1·2인칭에 한하여 ‘자기’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³⁾

또한 ‘자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지만, 마음을 가졌다 고 여겨지는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 (4) 우리 강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짹짹 떠든다.
 (오경숙:2016)

한국어에서 (4)와 같은 문장은 흔히 볼 수 있는 문장이다. 예문(4)에서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인 강아지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람과 강아지의 사이가 친밀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개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은 문장의 주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⁴⁾ 그러나 예문(5)에서 ‘자기’의 선행사는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일 수도 있다.

3) 오경숙(2016:140)에서 참조.

4) ‘자기’의 선행사가 주어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익섭(1978), 김정대(1981), 양동휘(1986), 『문법』(2002)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5) a. 호영은 란에게 자기 방에 있으라고 했다.
- b. 호영은 란을 자기 방에서 놀게 했다.

2) 자신

‘자신’은 각 인칭에 두루 쓰이는 재귀 표현이다. 인칭에 따른 제약이 크지 않고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위치에서 다소 자유롭게 등장한다.

- (6) a. 나는 자신을 믿는다.
- b. 너는 자신을 믿는다.
- c. 호영은 자신을 믿는다.

(6)에서 ‘자신’이 1인칭인 ‘나’, 2인칭인 ‘너’, 그리고 3인칭인 ‘호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인칭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문장에서 ‘자신’이 다른 명사구와 결합하여 쓰일 때 ‘자기’처럼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하면 안 된다. 이는 아래의 예문(7)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7) a.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 b. 그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성광수(1981)는 ‘자신’이 그 선행사를 가까운 체언 형식으로 택하며, ‘자기’보다 의미성이 강해 재귀대명사의 기능이 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신’은 인칭과 명사구의 종류에 제약 없이 모든 인칭과 명사구에 대해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신’의 강조 용법은 ‘자기’와의 쓰임에서 가

장 차이를 보이는 용법 중의 하나이다.

- (8) a. 나 자신/내 자신 : (*) 나 자기 / 내 자기
- b. 너 자신/네 자신 : (*) 너 자기 / 너 자신
- c. 그 자신 : (*) 그 자기

위의 (8)에서 ‘자신’이 대명사나 명사구의 1인칭, 2인칭, 3인칭 뒤에 연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자기’는 다른 대명사와 결합할 수 없다.

- (9) a. 나 자신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 b. **너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 c. 사장은 그 일을 **직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예문(9)는 ‘자신’이 선행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자신’은 앞의 선행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9)에서 ‘자신’을 생략해도 문장의 형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만 강조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이에 사람을 가리키는 말 뒤에 쓰여 앞에서 가리킨 바로 그 사람임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인 명사로 볼 수 있다.⁵⁾ 그러나 본고에서는 ‘자신’이 3인칭 선행사로 사용되며 재귀대명사 ‘자기’와의 대체가 자유롭고, 실제로 ‘자기’보다 의미성이 강해 재귀 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재귀대명사로 본다.

5) 『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

3) 저, 저희, 당신

한국어의 재귀 표현 중 낮춤표현 ‘저(제)’가 있으며 높임표현은 ‘당신’이 있다. 재귀대명사의 낮춤 형태인 ‘저’는 1인칭대명사 ‘저’와 다르다.

- (10) a. 영수는 **저**밖에 모른다.
 b. 그 아이는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했다.
 c. 우리 집 강아지는 고양이를 **제** 새끼처럼 키운다.
 d.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의 다른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
 e. 아들 내외가 또 사정을 하러 집에 찾아 왔지만 **저희**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10a, b)에서 선행사인 ‘영수’와 ‘그 아이’를 낮추는 재귀대명사 ‘저’를 사용하였다.⁶⁾ 그리고 (10c)에서처럼 동물인 ‘강아지’의 경우에도 재귀 표현의 낮춤 형태인 ‘제’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는 ‘저의’의 축약형이다. (10d)에서 ‘저’는 복수 명사를 선행사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0e)의 ‘저희’처럼 복수의 낮춤 재귀대명사로 사용된다.

- (11) a. **저**는 그 사람을 잘 압니다.
 b. **저희** 부모님은 매우 자상하세요.

(11) 예문의 ‘저’와 ‘저희’는 1인칭 대명사 ‘나’와 ‘우리’의 낮춤말이다.

- (12) 할머니는 **당신**께서 좋아하신 곳으로 여행을 가셨다.

6) ‘저’가 주격조사나 보격조사 ‘가’와 결합하면 ‘제가’처럼 쓰인다.

앞의 예문(12)에서 쓰인 재귀 표현 ‘당신’은 선행사가 아주 높임의 대상이 될 때에 쓴다. 이 예문에서 선행사가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이므로 재귀 표현의 높임 형태 ‘당신’을 사용하고 있다.

4)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는 ‘~가, ~를, ~에게, ~의’ 등과 같은 조사들과 결합하여 재귀 표현의 역할을 하며, 또한 ‘자기 자신’의 의미로 강조 용법으로 쓰인다.

- (13) a.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b. 너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c. 영수는 **스스로**를 책망한다.
 d. 민호는 **스스로** 집에 갔다.

그러나 예문(13)에서 보듯이 ‘스스로’는 인칭에 대한 제약 없이 사용된다. (13a)에서는 1인칭 대명사, (13b)에서의 ‘스스로’는 2인칭 대명사와 결합하여 강조 용법으로 쓰이고 있어 3인칭 재귀대명사로 보기 어렵다. (13d)의 경우에 성광수(1994)는 ‘스스로’는 ‘스스로가’에서 조사 ‘가’가 생략된 것이라는 점에서 재귀대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때 ‘스스로’는 자신의 힘으로 집에 간 것이므로 부사로 볼 수도 있다. (13c)에 쓰이는 ‘스스로’는 목적격 기능을 하며 선행사가 3인칭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자기자신’을 합성어의 재귀칭 대명사로 볼 수 있는가이다. ‘자기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띄어 써야 하므로 합성어인 명사로 보기 어렵다.

5) 본인

공식적인 자리나, 안내문, 공지문에 쓰이는 ‘본인’이 있다. ‘본인’은 다른 재귀대명사에 비하면 쓰임이 조금 다르다. 문장 내에서 선행사 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선행사는 불특정 다수를 뜻하거나 문맥상 문장 밖에 존재하면서 생략되어 쓰인다.

- (14) a.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b.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밝힐 것이다.
 c. 환자 **본인**을 위해 병실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d. 여러분이 반대하신다면 **본인**은 단독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예문(14)은 주로 공적인 자리나 안내문에 쓰인 문장들이다. (14a)에서 쓰인 본인의 선행사는 불특정의 재귀 표현으로 보아 안내문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선행사가 3인칭 유정명사로 보기는 어렵다. (14b)는 공적인 자리에 쓰인 문장이며 문장 내에 쓰인 ‘본인’의 선행사는 ‘대통령’이며, (14c) 역시 ‘본인’의 선행사는 ‘환자’로 이때 ‘본인’은 명사이다. 그리고 (14d)에서 ‘본인’은 대명사로 사용되었지만 1인칭 대명사 ‘나’의 용법이다.

6) 자체

문장 내에서 선행사를 재귀대명사로 되받아 표현할 때 ‘자체’를 사용하며, ‘자체’는 다른 재귀대명사들과 마찬가지로 문장 내에서 주격, 목적격, 관형격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다.

- (15) a.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
 b. 이번 문제는 회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 c. 네가 나를 그 정도 챙겨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
- d. 지구 **자체**의 온도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15)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체’의 선행사는 모두 무정물이 다. (15c)에서 쓰이는 ‘자체’는 선행사가 사물이 아닌 한 명사구를 가리키는 재귀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으며 동시에 문장 내에서 강조 용법도 나타나지만 이 역시 재귀대명사로 볼 수 없다.

2. 베트남어 재귀 표현

베트남어 재귀 표현은 한국어 재귀 표현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어 재귀 표현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대조 연구에서 양국 언어의 재귀대명사에 대한 대조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양국 언어 인칭대명사를 대조하는 연구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재귀대명사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다.⁷⁾ 베트남어 재귀 표현은 대표적으로 ‘*mình*’(밍), ‘*bản thân*(반턴)’, ‘*tự*’(쯔)가 있고, 또는 선행사 주어에 화자, 그리고 청자가 아닌 제3자이면 뒤에서 앞의 주어를 다시 언급할 때 3인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어 재귀 표현으로 ‘*mình*’(밍), ‘*bản thân*’(반턴), ‘*bản thân mình*’(반턴밍), ‘*tự*’(쯔) 등을 들 수 있다.

1) *Mình*

베트남어 재귀대명사의 대표적인 ‘*mình*’(밍)(자기/자신)은 선행사의 인칭대명사와 조응하여 쓰이며 경어법을 벗어나서 존대의 대상을 따지지 않고

7) 한국어와 베트남어 인칭대명사 대조의 연구로는 범광영(2003)와 루탄투이(2011)의 연구가 있다.

모든 사람을 대신 가리킬 때 쓰인다. 재귀대명사 ‘*mình*’은 인칭에 대한 제약 없이 모든 인칭에 쓰인다. 베트남어 문장의 어순이 SVO(주어+동사+목적어)이므로 문장에서 재귀대명사 ‘*mình*’은 목적어나 부사어 뒤에 위치한다.

- (16) a. Tôi tự trách **mình**. 내가 자신을 자책한다.
 b. Cậu hãy xem lại **mình** đi. 너 자신을 돌아봐!
 c. Hương đi vào phòng của **mình** hơng은 자기 방으로 간다.

(16)예문에서 ‘*mình*’은 1인칭대명사 ‘*tôi*’와 2인칭대명사 ‘*Cậu*’, 그리고 3인칭 ‘*Huong*’과 결속한다. 또 위에 예문을 보듯이 재귀대명사 ‘*mình*’은 문장 내에 목적어, 관형격 조사(의) 뒤에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베트남어에서 ‘*mình*’은 재귀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1인칭, 2인칭 대명사이기도 한다.

- (17) a. Cậu ấy xem hình của **mình**.
 그는 나의 사진을 본다. / 그는 자기의 사진을 본다.
 b. Người ngoại quốc đến nước **mình** nhiều.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온다.
 c. Tôi đi chợ, **mình** trông con nhé.
 나는 시장에 갈 거니까, 자기는 아이를 돌봐요.

(17a)에 쓰인 ‘*mình*’은 친한 사이에서 자기를 지칭하는 1인칭 단수 대명사이고, (17b)의 ‘*mình*’은 1인칭 복수형 대명사이다. 그리고 (17c)의 ‘*mình*’은 부부가 서로 부르는 호칭어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부부 사이에서 서로 부르는 ‘자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17a)는 문어에 쓰여 ‘*mình*’은 재귀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구어에서 생성한 문장이라면 문장

내에 쓰인 ‘mình’은 선행사의 ‘Câu ấy’를 가리키는 재귀대명사로 분석할 수도 있고, 발화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로 분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친한 사이에서 자기를 지칭할 때 1인칭대명사 ‘mình’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문장의 주어, 즉 선행사가 2인칭과 3인칭이 올 때에는 ‘mình’ 앞에 부사 ‘chính’(정)을 붙여서 쓰는 ‘chính mình’이 선행사를 재귀화한다. ‘chính’의 뜻은 ‘바로’, ‘그것이다’이다. 그러므로 재귀 표현을 나타낼 때 (17a)를 아래와 같이 쓰면 더 자연스럽다.

- (17) a' Câu ấy xem hình của **chính mình**.
그는 자기의 사진을 본다.

재귀대명사 ‘mình’은 높임 표현이 없지만 선행사가 낮춤 대상일 때 인칭 대명사 ‘nó’를 사용하여 선행사를 다시 가리킨다.

- (18) a. Em tôi nghĩ **nó** đẹp nhất.
우리 동생은 제가 가장 예쁠 줄 안다.
b. Con mèo liếm lông của **nó**.
고양이는 제 털을 핥는다.

위의 예문(18a, b)의 선행사 ‘동생’, 그리고 ‘고양이’는 낮춤대상이기 때문에 ‘mình’을 사용하는 대신에 재귀 표현의 낮춤 형태인 인칭대명사 ‘nó’가 쓰이고 있다.

2) *Bản thân*

‘*Bản thân*’(반턴)은 베트남어의 재귀 표현이다. ‘*Bản thân*’은 인칭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문장 내에 주어, 목적어, 관형어에 위치한다.

- (19) a. *Bạn nên chăm sóc bản thân cẩn thận.*
너는 자신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b. *Bản thân muốn thành công, phải học chăm chỉ.*
자신이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19)에 쓰인 ‘*bản thân*’은 목적어와 주어에 위치하고 있다. (19a)의 ‘*bản thân*’의 선행사는 2인칭대명사인 ‘*bạn*’이 된다. (19b)의 ‘*bản thân*’은 선행사가 없으며 공식적인 자리, 또는 문어에 쓰인 문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Bản thân*’은 인칭대명사나 명사구와 결합하여 그 선행사의 재귀대명사로 되받아 쓰는 것이다.

- (20) a. *Bản thân tôi cũng không hiểu mình.*
나 자신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b. *Bản thân sự việc này không đến mức nghiêm trọng.*
이 사건 자체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위의 (20a)에서 ‘*bản thân*’이 1인칭대명사 ‘*tôi*’와 결합한 ‘*bản thân tôi*’가 쓰여 문장의 의미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bản thân*’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bản thân tôi*’ 앞에 ‘*chính*’(정)을 덧붙여 쓰이면 문장 주어의 강조로 부각시킬 수 있다. (20b)에서 이 ‘*sự việc*’(사건)과 결합하여 그 사건의 본래 의미가 심각한 정도가 아닌 것을 뜻한다.

3) Tự

베트남어에서 ‘tự’(쯔)는 문장에서 재귀대명사 ‘mình’, 또는 ‘bản thân mình’ 과 같이 쓰며 문장의 주어를 강조한다. 이 경우에 ‘tự’은 문장의 동사 앞에 온다.

- (21) a. Anh ấy tự hỏi **chính mình**.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 그는 자신을 묻는다.
b. Mẹ tôi tự hứa với **mình**.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21)에서 ‘tự’가 동사 ‘hỏi’ 앞에 위치하고 있다. ‘Tự’는 목적어인 재귀대명사 ‘mình’과 함께 쓰여 문장의 주어를 돌이켜 가리키고 있다. 이외에 ‘tự’는 재귀대명사의 쓰임에서 강조용법으로도 쓰인다. 이런 경우에 ‘tự’는 재귀대명사 ‘bản thân’과 1,2인칭에 붙여서 복합 재귀 표현의 형태로 성립되고 문장의 주어에 위치하여 강조용법으로 쓰인다.

- (22) a. **Tự (bản thân) tôi** đã hoàn thành việc này.
나 스스로가 이 일을 완성했다.
b. **Tự bản thân cậu** đã bỏ lỡ cơ hội đó.
너는 자기 스스로 그 기회를 놓쳤던 거야.

(22a)예문에서 ‘tự’는 재귀대명사 ‘bản thân’과 1인칭대명사 ‘tôi’ (나)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으며 문장 주어를 강조한다. (22b)에서도 (22a)와 마찬가지로 ‘tự+재귀대명사 자신+2인칭대명사’의 복합 재귀 표현이 문장의 주어를 강조하고 있다.

Ⅲ.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재귀 표현 대조

1. 재귀 표현의 형태 및 통사적 대조

1) 재귀 표현의 형태 대조

앞에서 다룬 한국어와 베트남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양국 언어의 재귀 표현의 형태를 대조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베 재귀 표현 형태 대조

한국어 재귀대명사	베트남어 재귀대명사	예문
자기	mình / bản thân mình/ 3인칭대명사/ ~tự +동사+mình	란 씨는 자기 한테 어울리는 치마를 찾고 있다. Lan đang tìm chiếc váy phù hợp với mình (cô ấy)
자신	mình / bản thân / bản thân mình/ 3인칭대명사/ ~tự +동사+mình	그는 자신 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Anh ấy không nhận ra lỗi của bản thân. (mình)
스스로	tự (bản thân)+인칭대명사/ bản thân mình	나는 스스로 에게 속삭였다. Tôi đã thì thầm với bản thân mình. 너(그) 스스로 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Tự bản thân bạn phải giải quyết vấn đề đó.
당신	mình/bản thân/3인칭대명사	할머니는 당신 께서 좋아하신 곳으로 여행을 가셨다. Bà đã đi du lịch đến nơi mà mình thích.
저/제	nó(인칭대명사)	영수는 저 밖에 모른다. Young-soo chỉ biết nó thôi. 우리 동생은 제가 제일 예쁜 줄 안다. Em tôi nghĩ nó đẹp nhất.

<표 1>에서 보듯이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형태는 ‘자기, 자신, 스스로, 당신, 저’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재귀대명사는 ‘bản thân, mình, tự’가 있으며 한국어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어 재귀대명사들을 베트남어로 번역할 때 대부분이 ‘mình’, 또는 ‘bản thân’으

로 번역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 ‘자신’, ‘당신’을 베트남어로 번역하면 경우에 따라 ‘*mình*’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bản thân*’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복수 형태는 복수 접미사 ‘-들’과 결합하여 실현된다. 베트남어에서 명사의 복수형은 명사 앞에 ‘*những*’(능)이나 ‘*các*’(각)이 붙어서 실현되지만 재귀대명사의 복수 형태는 없다. 재귀대명사의 선행사가 1인칭, 2인칭 복수형일 경우에는 재귀대명사 ‘*mình*’,이나 ‘*bản thân*’을 쓰고, 재귀대명사의 선행사가 3인칭 복수형일 경우에는 재귀대명사 대신 3인칭 복수형 ‘*họ*’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23) a. 우리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된다.
 a'. Chúng ta không được nghĩ đến lợi ích của riêng ***mình***
 b.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b'. Những người đó đang làm việc mà ***họ*** muốn.

(23a, b)에서 보듯이 재귀대명사의 복수형은 ‘자신들’, ‘자기들’로 나타내고 있다. (23a’)에서 재귀대명사 ‘*mình*’의 선행사는 복수형인 ‘우리’인데도 재귀대명사 ‘*mình*’을 사용하고 있다. (23b’)의 예문에서 주어 ‘*những người đó*’는 3인칭 복수형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재귀 표현 ‘*mình*’, ‘*bản thân*’대신에 3인칭 대명사 복수형 ‘*họ*’를 사용하고 있다.

2) 재귀 표현의 통사 대조

베트남어 재귀 표현은 대부분 선행사에 대한 제약이 없지만 한국어 재귀대명사 중에서 ‘자기’는 다른 한국어 재귀대명사에 비교적 제약이 많다. ‘자기’의 선행사가 3인칭이어야 하는 것은 문장에서 ‘자기’가 쓰이는

절대적 조건이다.

- (24) a.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b.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c. Tôi muốn sống và làm việc mà **mình (bán thân tôi)** thích.

위의 (24a)는 자기의 선행사가 1인칭대명사 ‘나’이기 때문에 비문이다. 그런데 (24b)처럼 ‘자기’를 대신 ‘자신’이 쓰이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성립된다. 반면에 베트남어에서는 (24c)에서처럼 선행사가 1인칭대명사 ‘tôi(나)’이어도 재귀대명사 ‘mình’이나 ‘bán thân mình’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에서 재귀대명사 ‘자기’와 ‘자신’을 결합하여 쓰인 통사적 구조의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도 존재한다.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재귀 표현은 ‘bán thân mình(반틴밍)’이다. ‘bán thân mình’은 역시 재귀대명사 ‘bán thân’과 재귀대명사 ‘mình’의 결합 형태다. 한국어 ‘자기 자신’은 베트남어 재귀 표현 ‘bán thân mình’과 마찬가지로 선행사에 대한 제약이 없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선행사에 격조사, 또는 보조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

- (25) a. 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너 (*)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a'. Bạn phải yêu **bán thân mình**.
 b. 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나 (*)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b' Tôi yêu **bán thân mình**.
 c. 효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c' Hương yêu **bán thân mình**.

(25)예문에서 보듯이 ‘자기 자신’과 ‘bản thân mình’의 선행사는 모든 인칭에 다 쓰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자기 자신’의 경우에 선행사 ‘나, 너, 호영’에 보조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또한 ‘자기 자신’은 중의성을 해소하거나 ‘자기’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⁸⁾ 베트남어 재귀 표현 ‘bản thân mình’도 재귀대명사 ‘mình’, ‘bản thân’을 대체로 사용하여 중의성을 해소한 것이다.

- (26) a. 호영은 프영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a'. Hương nghĩ là Phương thích mình.
 b. 호영은 프영이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b'. Hương nghĩ là Phương thích bản thân mình.

(26a)에서 쓰인 ‘자기’의 선행사는 주절의 주어인 ‘호영’이 될 수도 있고, 종속절의 주어인 ‘프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26b)에서 ‘자기’ 대신 ‘자기 자신’을 쓰게 되면 문장 내에서 재귀 표현 ‘자기 자신’이 지시하는 선행사는 ‘호영’보다 ‘프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26a')에서 쓰인 ‘mình’의 선행사는 주절의 주어인 ‘호영’이나 종속절의 주어인 ‘프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베트남어 ‘mình’은 재귀대명사뿐만 아니라 1인칭 대명사도 되기 때문에 (26a')에서 쓰인 ‘mình’은 발화하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다. (26b')에서 쓰인 ‘bản thân mình’의 선행사는 ‘프영’보다 ‘호영’으로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재귀 표현이 문장에서 주어, 관형어, 목적어에 위치하는 것이 양국 언어의 공통점이다. 그리고 교착어인 한국어의 특징으로 한국어 재귀대명사는 ‘이/가, 예게, 의, 을’ 등과 같은 조사와

8) 최경도(2012:17)에서 참조.

결합하여 사용하지만, 고립어인 베트남어에서 재귀 표현은 격 표지 없이 단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장에서 ‘자기’가 쓰일 때 관형격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조사 ‘의’를 생략해도 되는 반면에 ‘자신’, ‘스스로’ 등이 쓰일 때는 ‘의’를 생략하면 안 된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재귀 표현이 관형격의 역할을 할 때 관형격 조사인 ‘của’를 생략하면 안 된다.

3) 재귀 표현의 높임 대조

한국어 재귀대명사 높임법에 따라서 낮춤표현 ‘저(제)’, ‘저희’가 있으며 높임표현 ‘당신’이 있다. 한국어 재귀대명사 ‘당신’은 그 선행사가 높임법상 ‘아주높임(하십시오체)’의 대상일 때 쓰인다. 베트남어에서 재귀대명사는 높임표현이 없지만 낮춤표현으로서 대명사 ‘nó’가 있다. 즉 베트남어에서 재귀 표현의 선행사가 높여야 하는 대상일 때도 재귀대명사 ‘mình’이나 ‘bản thân’을 쓴다.

- (27) a.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건강을 관리 잘하셨다.
 a'. Lúc còn sống ông đã giữ gìn sức khỏe của **mình** rất tốt.
 b. 영수는 **저**밖에 모른다. 여동생은 **제**가 가장 예쁜 줄 안다.
 b'. Young-soo chỉ biết **nó** thôi. Em tôi tưởng rằng **nó** đẹp nhất.
 c. 우리 집 강아지는 고양이를 **제** 새끼처럼 키운다.
 c'. Con chó nhà tôi nuôi con mèo như con của **nó**.
 d. 그들이 찾아와서 변명했겠지만 **저희**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d'. Những người đó đã tìm đến để biện minh nhưng dù **họ** nói gì đi nữa cũng không lay được lòng tôi.

(27a)의 ‘당신’은 2인칭 대명사가 아닌 3인칭 재귀대명사이다. 문장의 주어 ‘할아버지’는 존대할 대상이므로 존칭의 재귀칭 ‘당신’을 쓰고 있다. 그런데 (27a’)예문에서 보듯이 베트남어에서는 선행사가 높여야 할 대상인데도 재귀 표현 ‘minh’을 사용하고 있다. (27b)에서 ‘저’와 ‘제’도 1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낮춤의 표현인 3인칭 재귀대명사로 쓰였다. 베트남어에서는 (27b’)처럼 재귀 표현의 낮춤표현 ‘nó’를 사용하여 선행사 ‘con chó’를 되돌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27c)예문에서 선행사 ‘강아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재귀대명사의 낮춤표현인 ‘제’가 쓰이고 있다. 베트남어에서도 예문(27c’)처럼 재귀 표현의 낮춤표현인 ‘nó’를 사용하여 선행사 ‘con chó’(강아지)을 되돌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27d)의 ‘저희’도 1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3인칭 복수의 재귀대명사로 쓰였다. 베트남어는 (27d’)에서처럼 제3인칭 복수 재귀대명사로 대명사 ‘họ’를 쓰고 있다. 따라서 ‘저, 저희(복수), 당신’은 한국어에서 1인칭 대명사나 3인칭의 재귀대명사의 형태가 동일한데 베트남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베트남어에서 선행사가 복수형일 경우 높임법과 상관없이 재귀 표현으로 3인칭의 복수형 ‘họ’를 쓴다.

2. 재귀 표현의 의미·화용적 대조

1) 의미 기능

한국어와 베트남어 재귀 표현은 의미 기능에서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양국의 재귀 표현들이 강조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재귀대명사 ‘자신’, ‘스스로’는 인칭대명사나 명사와 결합하여 강조용법으로 쓰인다. 베트남어에서 강조용법으로 쓰일 때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재귀 표현 ‘minh’, ‘bản thân’ 뒤에 인칭대명이나 명사를 붙인다. 이 중에서

재귀 표현 ‘*mình*’은 사람을 가리킬 때만 쓰지만 재귀대명사 ‘*bản thân*’은 사람을 가리킬 때나 사물을 가리킬 때도 모두 쓸 수 있다. 이외에 재귀대명사 ‘*mình*’ 또는 ‘*bản thân+인칭대명*’ 앞에 부사 ‘*chính*’, 또는 부사 ‘*tự*’를 붙여서 강조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 (28) a. **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a'. (*Chính*) *Bản thân* tôi đã giải quyết vấn đề đó.
 b.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b'. Tôi tin vào *chính mình*.
 c.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
 c'. ***Bản thân*** câu hỏi đó quan trọng.

(28a)에서 쓰인 ‘자신’은 강조용법으로 쓰인다. 즉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8a’)에서 선행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재귀 표현 ‘*bản thân*’ 뒤에 1인칭대명사 ‘*Tôi* (나)’를 붙여서 쓰이고 있다. 또는 더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bản thân tôi*’ 앞에 부사 ‘*chính*’을 붙여서 쓰이기도 한다. 예문(28b)에서 쓰인 ‘내 자신’은 선행사 ‘나’를 강조하고 있다. (28b’)에서 주어인 ‘*Tôi*’(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재귀대명사 앞에 부사 ‘*chính*’을 붙여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예문(28c)에서 쓰인 ‘자체’는 문장에서 주어의 의미를 갖는 질문의 그 본래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베트남어에서 예문(28c’)처럼 주어인 ‘*câu hỏi đó*’(그 질문)를 강조하기 위해서 ‘*câu hỏi đó*’앞에 재귀대명사 ‘*bản thân*’을 붙여서 쓰고 있다.

2) 화용적 제약

한국어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화법으로 다시 언급할 경우에 그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말할 때에는 인칭대명사 ‘나’, ‘너’를 재귀대명사 ‘자기’, ‘자신’으로 바꿔 쓴다. 베트남어에서 간접화법으로 다른 사람을 다시 전달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에는 재귀대명사를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3인칭으로 바꿔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29) a. 호영: 오늘 친구가 **나**에게 커피를 사 주었어요.
 [간접화법] 호영은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자기**에게 커피를 사 주었다고요.
- b. Hương : Hôm nay bạn đã mua cà phê cho **tôi**.
 호영 : 오늘/친구/과거부사/사다/커피/에게/나
 [간접화법] Hương nói rằng bạn đã mua cà phê cho **cô ấy**.
 호영/말하다/친구/과거부사/사다/커피/에게/**그녀**

(29a)예문처럼 간접화법을 쓰는 경우에 ‘호영’이 자기를 가리키는 1인칭대명사 ‘나’를 ‘자기’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29b)예문인 경우 베트남어로 호영의 말을 다시 전달할 때 호영이 자기를 가리키는 1인칭대명사 ‘tôi’(나)를 3인칭으로 바꿔 쓰고 있다.

3. 베트남어 모어의 간접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베트남어에서 재귀대명사 ‘minh’은 재귀대명사이면서 1인칭대명사이다. 그러므로 구어에서 문장의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인 경우에 쓰인 대명사 ‘minh’은 주어인 선행사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발화하는 사람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귀대명사 ‘minh’은 구어보다 문어에서 더 많이 쓰인다. 이로 인

해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는 재귀대명사 ‘자기’나 ‘자신’ 등 대신 3인칭을 사용하여 부자연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을 예측한다.

- (30) a. 호영은 **자기가** 만든 빵을 친구에게 주었다.
 b. Hương đã cho bạn bánh mà **mình** làm.
 c. Hương đã cho bạn bánh mà **cô ấy** làm.

(30a)에서 쓰인 ‘자기’는 주어의 ‘호영’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대명사이다. 그런데 이 문장을 베트남어로 번역할 때 (30a)의 재귀대명사 ‘자기’가 (30b)처럼 재귀대명사 ‘mình’으로 번역되면 ‘mình’의 선행사가 문장의 ‘주어’인 ‘호영’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화자를 가리키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문장의 뜻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예문 (30c)처럼 재귀대명사 ‘mình’대신 3인칭대명사 ‘cô ấy’(그녀)이 쓰인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가 (30a)의 문장을 만들 때 ‘자기’ 대신에 ‘그녀’를 사용하여 부자연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다.

4. 종합적인 대조 결과

이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 재귀 표현에 대한 대조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재귀 표현 대조

대조 내용		한국어 재귀 표현			베트남어 재귀 표현		
		자기	자신	스스로	minh	bản thân	tự
결합 정보	격조사와 결합 유무	있음			없음		
	관형격 조사 '의'의 생략 가능성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복수형	'들'과의 결합		없음	-선행사가 3인칭 복수 명사일 경우에 만 3인칭 복수 대명사 'họ'가 쓰인다.		
선행사에 대한 제약	인칭	선행사가 3인칭이 어야 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 '자체'를 사용함.			- 'bản thân'을 사용함.		
높임법		존대 : 당신 낮춤: 저/제 공격 표현 : 본인			존대 : 없음 낮춤 : nó		
강조 기능		없음	인칭대명사+자신 인칭대명사+스스로 자기 자신		-bản thân+인칭대명사 -chính mình -chính bản thân+인칭대명사 -tự mình -tự bản thân+인칭대명사		
간접화법		간접화법에서 쓰임			간접화법에서 재귀 표현보다 3인칭대명사를 씀		

1) 공통점

베트남어 재귀 표현이 한국어 재귀 표현보다 발달하지 않았지만 양국 언어 간에 재귀 표현에 대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언어의 재귀 표현은 문장이나 절 내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따위의 다양한 기능을 드러내는 자리에 쓰인다. 둘째, 양국 언어 재귀 표현은 모두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다. 즉 한국어에서는 재귀대명사 '자신', '스스로' 등이 인칭대명사나 명사 뒤에 결합하여 강조용법으로 쓰이고, 베트남어에서는 재귀 표현 'minh', 'bản thân' 뒤에 인칭대명이나 명사를 붙

여서 강조용법으로 쓰인다. 셋째, 한국어와 베트남어 재귀대명사는 모두 낮춤표현이 존재한다.

양국 언어 간에 이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한국어 재귀 표현에 대한 학습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2) 차이점

한편, 양국 언어 재귀 표현에 대한 차이점도 많은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재귀대명사는 ‘자기’ ‘자신’, ‘스스로’ 등이 있고 베트남어 재귀 표현은 ‘minh’, ‘bán thân’, ‘tự’ 등이 있는데 한국어 재귀대명사 각각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재귀 표현은 없다. 다만 한국어 재귀 표현을 베트남어로 번역할 때에 경우에 따라 모두 ‘minh’, ‘bán thân’, ‘bán thân mình’, ‘tự’,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알맞은 한국어 재귀대명사를 사용할 때 어려울 수 있다.

둘째, 교착어인 한국어의 특징으로 재귀대명사 뒤에 격조사와 결합하여 쓰이지만 고립어인 베트남어에서는 대명사 뒤에 격조사 없이 쓰인다. 다만 베트남어 재귀 표현은 소유격과 같이 쓰일 때만 관형격 조사 ‘của’를 쓰되 이를 생략할 수 없다.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의 쓰임에서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에서 재귀 표현의 복수 형태는 복수 접미사 ‘들’과 결합하여 실현되지만 베트남어에서 재귀 표현의 복수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베트남어 재귀 표현은 선행사에 대한 제약이 없는 반면에 한국어 재귀 표현 중에 재귀대명사 ‘자기’의 선행사는 인칭에 대한 제약이 있다. 즉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의 선행사는 3인칭이어야 한다.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기’를 사용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을 예측한다.

다섯째, 한국어에서 재귀 표현의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 재귀대명사 ‘자기’, ‘자신’ 대신에 재귀 표현 ‘자체’를 사용한다. 그런데 베트남어에서는 재귀 표현의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별 없이 재귀대명사 ‘bán thân’을 사용한다.

여섯째, 한국어에서 재귀 표현은 높임법에 따라 낮춤표현 ‘저’, ‘제가’ 있으며, 존칭표현 ‘당신’이 있지만 베트남어에서 재귀 표현의 존칭표현이 존재하지 않고, 낮춤표현인 ‘nó’가 쓰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화법으로 다시 언급할 때 그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말할 때에는 인칭대명사 ‘나’, ‘너’를 재귀대명사 ‘자기’, ‘자신’ 등으로 바꿔 쓴다. 그런데 베트남어에서 간접화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다시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경우에는 재귀 표현보다 3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V.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한국어와 베트남어 재귀 표현을 살펴보고 양국 언어 재귀 표현을 형태·통사·의미적으로 대조를 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재귀 표현을 교수·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베트남어에서 재귀 표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때 학습자에게 재귀 표현, 또는 재귀대명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베트남어에 대응하는 재귀 표현이 무엇인지 학습자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어 재귀 표현 중에서 재귀대명사 ‘자기’는 ‘자신’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기’와 ‘자신’을 혼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자기’와 ‘자신’을 베트남어로 번역하면 ‘*minh, bản thân*’으로 번역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이 ‘자기’와 ‘자신’을 구별하여 맞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자기’의 제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제약을 더 쉽게 습득할 수 있기 위해서 재귀대명사 ‘자기’와 ‘자신’의 쓰임을 대조해서 설명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셋째, 한국어 재귀 표현 ‘자기’와 ‘자신’을 ‘스스로’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설명한다. 이때 ‘스스로’는 ‘가, 를, 에게, 의’ 등과 같은 조사들과 결합해야 재귀 표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재귀 표현은 ‘*tu+동사+재귀 표현(minh/bản thân)*’이 있다. 넷째, 한국어 재귀대명사는 ‘이/가, 에게, 의, 을/를’ 등과 같은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장에서 ‘자기’가 쓰일 때 소유격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해도 되지만 문장에서 재귀 표현 ‘자신, 스스로’가 쓰일 때는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할 수 없음을 설명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어 재귀대명사 복수 형태는 복수 접미사 ‘~들’과 결합하여 실현되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왜냐하면 베트남어에서 재귀대명사의 복수형이 없어서 선행사가 3인칭인 경우에 선행사를 되돌아가 가리킬 때 재귀대명사의 복수형 대신 3인칭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한국어 재귀 표현과 베트남어 재귀 표현은 모두 강조 용법으로 쓰이는 공통점을 학습자에게 설명하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는 강조 용법으로 쓰이지 않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한국어 재귀 표현은 높임의 등급이 있다는 것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즉 재귀 표현의 존칭 표현 ‘당신’, 그리고 낮춤표현 ‘저, 제, 저희(복수형)’를 학습해야 한다. 일곱째, 베트남어에서 ‘*minh*’은 재귀

표현이기도 하고 1인칭대명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장에서 ‘minh’이 사용되면 이때 ‘minh’을 재귀대명사로 볼 수도 있고 발화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대명사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자가 화자의 발화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재귀 표현 대신 3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 이러한 모어의 간접으로 인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재귀대명사 ‘자기’나 ‘자신’을 사용하기보다 3인칭대명사를 사용하여 부자연스런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여덟째, 한국어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다시 언급할 때 재귀 표현 ‘자기, 자신, 스스로’를 사용하며,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강조하여 가리킬 때 재귀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만 베트남어에서 이와 같은 선행사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이런 차이점을 학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어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다시 전달할 때, 재귀대명사 대신 3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가 간접화법으로 사용할 때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간접화법이나 재귀대명사를 가르칠 때, 이런 점을 학습자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는 재귀 표현에 대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대조 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교수·학습 방안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교육 방안은 후행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 강남길, 「지시와 재귀사」, 『한말연구』 8, 한말연구학회, 2001, pp.1-16.
- 강범모, 「문법과 언어 사용」, 『국어학』 31, 국어학회, 1998, pp.165-204.
- 구분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1』, 집문당, 2015.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_____,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김광희, 「국어 재귀표현 구서의 범주 특성」, 『한말연구』 29, 한국언어문학회, 1991, pp.377-400.
- 김일웅, 「우리말 대용어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 박진호,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 50, 국어학회, 2007, pp.115-147.
- 박덕유, 『이해하기 쉬운 문법교육론』, 역락, 2017.
- 백문영, 「한국어·중국어 재귀 표현 대조 연구 및 교육 방안 - 한국어 ‘자기’, ‘자신’, 중국어 ‘自己’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범광영, 「한국·베트남어의 인칭대명사 비교 연구」, 『새얼어문학회』 15, 새얼어문학회, 2003, pp.311-342.
- 루탄투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칭대명사 대비 연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2002.
- 성광수, 「국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재고」, 『한글』 172, 한글학회, 1981, pp.29-56.
- _____, 「통칭대명사의 결속관계」, 『목천유창균박사화갑기념논문집』, 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pp.309-322.
- 서정수, 『현대 국어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6.
- 엄홍준,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속성」, 『언어』 39, 한국언어학회, 2014, pp.899-919.
- 오경숙, 「한국어 재귀사 교육을 위한 문법 내용 연구, ‘자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5, pp.249-262.
- _____, 「한국어 재귀사 교육을 위한 문법 내용 연구, ‘자기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65, 이중언어학회, 2016, pp.131-152.
- 여도수, 「재귀대명사화의 의미론적 연구」, 『논문집』 6, 공주영상정보대학 1999, pp.187-205.

- 이익섭, 『한국어의 再歸代各詞에 대하여』, 『人文論叢』 2, 서울大學校人文大學, 1978, pp.3-25.
- 임흥빈, 『국어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1987.
- 장석진, 『조용의 담화 기능: 재귀 표현을 중심으로』, 『한글』 194, 한글학회, 1986, pp.121-156.
- 전기량, 『15세기 국어 재귀사에 대한 일고찰』,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2015, pp.167-190.
- 정연창,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해석과 생략』, 『언어과학』 10, 한국언어과학회, 2003, pp.137-153.
- 제효봉,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재귀표현 사용 양상 연구 -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2011, pp.257-286.
- 최경도, 『한국어 재귀 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75.
- 한송화, 『재귀대명사 ‘자기’의 의미와 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3, pp.279-303.
- 홍순성,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특질』, 『東西文化』, 啓明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7, pp.249-263.
- Tran Thi Mai Thao, 『베트남어 대명사에 대하여 - 영어와의 대조』, 호치민사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n the Korean
and Vietnamese Reflexive pronouns

Nguyen Ngoc Vinh Hang · Park, Deok-yu

When foreigners learn Korean as second language, reflexive pronouns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difficult grammars for them to well understand and use correctly. While someone can argue that reflexive pronouns seem to be simple at the first look, we took a deep research into the grammatical function and found that its applications are complicated can be misused in many cases. Apparently, we drafted this paper to compare Vietnamese and Korean reflexive pronouns. The second chapter demonstrates an overview of both languages. The third chapter compares their meanings, structures, and forms in order to clar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In conclusion, we suggest some strategies for learning and teaching Korean reflexive pronouns for Vietnamese people.

Key Word : reflexive pronouns, Korean reflexive pronoun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mparing Korean and Vietnamese Reflexive pronouns

응웬옥빈항(제1저자)

소속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수료

전자우편 : vinhhang2803@gmail.com

박덕유(교신저자)

소속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 deokyu@inha.ac.kr

이 논문은 2019년 1월 21일 투고되어
2019년 3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3월 11일 게재 확정됨.